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21일(월)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해양항만과	담당자 • 해양기획팀장 서미숙 ☎440-4821 • 담당자 윤이경 ☎440-482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암물류2단지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착공

- 세관검사장(5개소)과 컨테이너검색센터(2기) 통합·이전, 내년 6월 준공 -
- 신속한 통관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으로 인천항 발전 원동력 기대 -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은 21일 관세청에서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 중인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은 관세청이 총사업비 1천156억 원을 투입해 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9만9천여㎡(3만평)부지, 연면적 4만7,500㎡(1.4만평) 규모로 세관검사장 5개소와 컨테이너검색센터 2기를 통합 이전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상특송물류센터와 컨테이너검색센터, 관리대상 화물창고, 사무동 등이 들어서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그간 세관 검사 시설은 좁고 포화상태여서 급증하는 해외직구 해상특송 화물과 마약류 등 중국발 고위험 화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통합검사장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했으며, 2018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인천신항과 2020년 6월 개장한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으로 기업물류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마약류 등의 고위험 중국발 화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축사에서 “ 아암물류2단지의 전자상거래특화구역, 스마트물류센터와 함께 신속한 통관 등의 다양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인천항은 미래 인천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더 큰 원동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가능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주요시설별 향후 개선효과

- ① (관리대상화물창고) 現 하루 최대 Con't 8대 → 後 20대 검사 가능
- ② (컨테이너검사센터) 現 하루 최대 Con't 80대(2기 운영) → 後 160대 검사 가능(4기 운영)
- ③ (해상특송물류센터) 現 동시 6개 라인, 年 1.2천만건 → 後 11개 라인, 年 3.2천만건 처리

〈사진〉 조감도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